

# 사찰도서관

## '신도·주민의 문화 공간'

조계사·불광사·인덕원 등 12곳 개설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곳, 사찰 도서관. 기도와 수행 외에도 책을 읽으며 신심을 다지는 새로운 공간.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서울 불광사(주지 지암)가 사찰도서관으로 최초로 전산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도서관 문을 열면서 사찰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도서관을 갖춘 사찰은 전국에 12곳 정도(표 참조). 국내 사찰수를 1만2천여개로 추산할 때 0.1%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이제 시작 단계.

사찰도서관은 신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책을 빌려갈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는 인사말로 안부를 나눈다. 지역 문화공간이자 화합의 장소인 셈. 신도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역할도 사찰도서관의 큰 몫이다. 모두가 책을 읽는데 읽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에 이끌려 한 두 번 들러보니 단골손님이 된다.

정보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 시간은 없고 읽어야 할 책들은 많아서 고민거리. 어떤 책을 골라 읽어야 할지는 그나마 행복한 고민이다. 사찰도서관은 이런 고민들도 간단히 해결해 준다. 바로 가까이 있어 마음만 낸다면 책을 손에 쥌 수 있다. 또 시스템만 아니라 불교에 웬만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도서관을 지키고 있어 가벼운 상담으로도 근기에 맞는 불서를 선택할 수 있다.

89년 문을 연 서울 사천왕사 도서관. 이곳에서는 매주 한 차례씩 독서모임이 열린다. 벌써 7년째. 12명의 회원이 그 주에 읽은 책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한다. 부처님에게

들이 도서관을 자주 드나든다. 지난 해 문을 열었지만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1만여권. 웬만한 소설이나 이들을 위한 책들이 즐비하다. 인덕원측의 적극적인 홍보로 호기심에 한 번 들러본 지역민들은 반드시 이곳을 또 찾는다. 사찰도서관이 지역민들의 포교요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하지만 아직 사찰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도서관리 전산화 등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장서의 다양화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사찰마다 도서관을 만든다면 일반 불자들은 다양한 불서를 손쉽게 읽게 되어 '불서읽기 붐'도 조성되고 이에 따라 불서출판도 활성화되어 침체돼 있는 불교출판문화 육성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이젠 모든 사찰들이 도서관을 구비해야 합니다. 청소년 회관이나 복지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책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불광사 주지 지암스님은 사찰도서관의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한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최근 문을 연 서울 불광사 도서관, 전산관리 등 모든 운영을 신도들이 맡고 있다. 사찰도서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다.

### ◇사찰 도서관 현황

도서관	보유장서	연락처
조계사	1천권	(02)720-1390
삼선도교원	4천권	(02)923-0582
불광사	2천권	(02)413-6062
관문사 금강불교대	5천권	(02)3460-5300
삼천사 인덕원	1만권	(02)385-8205
사천왕사	2천권	(02)939-3900
강남포교원	1만권	(02)539-2631
부산 심광사	5천권	(051)808-7111
부산불교교육원	3천권	(051)466-4080
대전 녹야원	3천권	(042)625-1080
일산 원각사	3천권	(0344)913-7744
여수 석천사	5천권	(0652)666-1770

### 새로운 책



▲영혼을 다스리는 49가지 이야기 =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가. 과연 영혼은 있는가. 판단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다. 이 책은 이 물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겐 관심을 끌만하다. 구명시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글들로 구성돼 있으며, 구명시식과 인연이 된 이들의 원고를 묶은 것이다. 8월 15일 출간. (명지사, 8천원)



▲내 남편은 이상 =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라는 평가를 받는 윤이상. 불교의 등회 사상과 음악의 노장 사상을 음악을 통해 노래했던 사람. 이 책은 항상 가까이서 지켜 본 아내 이수자 씨가 그의 삶과 고백 그리고 그를 고스란히 담은 책. 그의 음악과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통일의 간절한 열정을 아낌없이 담고 있다. 상·하 두권. (창작과 비평사, 각 권 1만 원)



▲내 스무살을 울린 책 = "만약 도를 이루지 못하고 죽어 해골이 되거나 이렇게 겁해 주시오, 도를 구하려 노력하다 혹은 사나이의 해골이 여기 있다고." 경전(숏타니파)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은 만화가 박재홍씨에게 삶의 지표가 되었다. 이 책은 이해인 수녀, 시인 정호승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젊은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했다. (작가정신, 7천5백원)

## 사찰마다 도서관 만들기 나서야 '여론' 장서 다양화 - 도서관리 전산화도 숙제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기쁨도, 그저 눈이나 나뉘는 서로간의 사이가 가까워진 것도 도서관이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불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협지도 있고 만화도 있다. 삼천사 인덕원 도서관에는 장년층이나 어린이

가 현존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직접 찾아내 원어를 표시했다. 인도인의 생활과 인도사상을 검토해 그 숨어가 의미하는 바도 설명해 놓았다. 용어를 채집하는데 있어 기준에는 검토하지 못했던 불교경전의 한역문헌을 비롯한 인도, 중국, 일본의 중요한 불교문헌을 참작한 노고도 숨어있다.

10년이란 세월이 말해줄듯 사전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새롭다. 술어의 정확성은 물론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텍스트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두, 해능과 세익스피어	김용옥	통나무
2	계달음으로 가는 울바론 순서	초 권	여시아문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4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5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 열	여시아문
6	화두 짓는 법	보광 편집부	토방
7	불교입문	조계종중앙부	조계종출판사
8	성지와 법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윤순	신우당
9	현대인과 선	양기봉	대원정사
10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홍	효림

구입문의: (02)737-0695

# "6만5천 단어 수록... 불교용어 집대성"

## 불교대사전 펴낸 흥법원 김정길대표



불자들이 평소 불교공부를 하거나 불서를 읽을때 가까이 하는 것이 불교대사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불교학 대사전>(흥법원 펴냄, 1988년)은 3만2천여개의 단어만을 수록하고 있어 '찾지 못했던 용어'들로 안타까움을 느꼈던 불자들이 많았다.

또 지금까지 나온 불교대사전은 한문위주의 해석과 설명으로 난해하다는 평을 들었다. 좀더 많은 용어 수록과 우리말에 가까운 단어 풀이가 아쉽기만 한 이런 문제점을 덜어낸 <불교대사전>(상·하권 흥법원 펴냄)이 나왔다.

"88년 <불교학 대사전>을 펴낸 후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아쉬움을 덜어내기 위해 10년간 작업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이 방대한 사전을 엮은 흥법원 김정길 대표(58).

<불교대사전>은 여러가지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불교대사전의 대표격이었던 <불교학 대사전>보다

각국 불교문헌 인용  
팔리어 등 원어표기  
사제 7억여원 들여  
10년만에 결실

두 배 정도 많은 6만5천여 단어를 수록했다. 단어설명을 현대어로 쉽게 풀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썼다. 통일한 용어는 다각적으로 설명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88년 펴냈던 <불교학 대사전>이 한정된 단어였다. 한문 위주의 해석과 설명으로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번 <불교대사전>은 한문 위주의 해석과 설명을 덜어내고 원어를 표시해 일종의 원어사전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새롭다. 술어의 정확성은 물론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텍스트

가 현존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을 직접 찾아내 원어를 표시했다. 인도인의 생활과 인도사상을 검토해 그 숨어가 의미하는 바도 설명해 놓았다. 용어를 채집하는데 있어 기준에는 검토하지 못했던 불교경전의 한역문헌을 비롯한 인도, 중국, 일본의 중요한 불교문헌을 참작한 노고도 숨어있다.

10년이란 세월이 말해줄듯 사전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새롭다. 술어의 정확성은 물론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텍스트



처분했습니다. 불철주야로 작업하다보니 당노와 시력저하까지 겹쳐 더군오. 하지만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김대표는 이 사전이 널리 읽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불교출판에 발을 들여 놓은 30년 동안 불교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흥법원은 이번 <불교대사전>을 펴내에 이어 <밀교사전>과 <인명사전>도 빠르면 연내에 펴낼 계획이다. 상·하권의 가격은 22만원이다. 미련을 위해 50페이지 아파라까지

한영우 기자

### 독서의 달 1천3백여 행사 펼쳐져

독서의 달을 맞아 문화관광부는 공공도서관과 독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1천3백여개의 행사를 펼친다.

이중 관심을 끄는 행사는 24-26일까지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98전국도서관대회. 각계 인사 2천여명이 참석해 '책의 역사 특별전시회' 등 다양한 기획이 마련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6일까지

'세계 각국 언어 사전 전시회'를, 10월22일까지는 도서관문화학교를 연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교보, 종로, 영등, 을지 등 서울의 주요 서점에서 30일까지 '청소년이 읽을만한 책' 특별관내 코너를 운영한다.

부산 금정도서관은 '독후감 감상회 전시회'를 30일까지 여는 등 각 지역별 도서관들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 '입문서 코너' 개설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이 독서의 달을 맞아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11월22일로 예정된 조계종교사 고시를 준비하는 불자들을 위해 '입문서 코너'를 개설, 입문서 코너에는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펴냄) 등 기초입문서와 <한글 아함경>(동국대출판부 펴냄) 등 경전과 선 관련서, 불교교양서 등 모두 40여종의 책을 선보이고 있다. (02)737-0695

석목, 진물진, 만물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조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번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진 완성
- 현재 좌불 만들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836-7527(FAX겸용) 자 택 : T)0653-831-3953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옥수 합장

##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 佛敎大辭典

THE ENCYCLOPEDIA OF BUDDHISM



### 最多語彙 · 最新譯解 · 最善編輯

- ①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 ② 가능한한 각 용어 마다 범어·팔리어·티베트어 등 원어를 찾아내어 표시하였다.
  - ③ 한글 세대를 위하여 한문은 괄호안에 넣었다. 또한 불교의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영국 옥스포드판 「漢英佛學大辭典」을 부록으로 실었다.
-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下 3,600면/정가220,000원

도서출판 흥법원 ·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